광주 학원교습 初·中 밤 10시, 高 자정까지만

빠르면 5월부터…시민단체 "고교생도 10시 제한을"

빠르면 5월부터 광주지역 학원의 수업시간이 초·중학생의 경우 밤 10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고교생의 경우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168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학원 교습 시간을 초·중학생의 경우 밤 10시, 고등학교는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시간 이후 학원 심야 수업이 제한되며 이 규정을 어겨 운영하는 학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광주시의회 김성숙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광주지역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조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광주지역 60개 초·중·고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만6천289명을 대상으로 학원심야교습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자의 82.9%(2만1천814명)가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조사 대상자 1만2천470명 가운데 80.7%(1만61명)가, 학부모는 1만2천334명 가운데 84.0%(1만350명), 교사 1천485명 중 94.5%(1천403명)가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48.3%(1천977명), 학부모 66.6%(2천705명), 교사 69.2%(340명)가 밤 10시까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학교도 학생 53.8%(2천250명), 학부모 54.1%(2천215명), 교사 64.8%(320명)가 밤 10시 제한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반면 고교의 경우 학생(1천295명·30.9%)과 학부모(1천397명·33.4%)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자정까지 제한에 찬성했다.

심야 교습 시간 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건강(4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안전 귀가(47.8%)를 꼽는 경우가 많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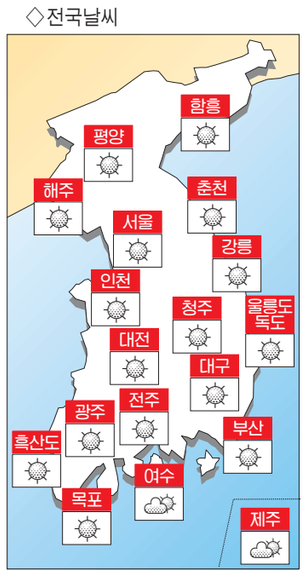
포근한 봄날

4월 28일 (음 3월 23일) 날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 조금	8~23℃
목 포	구름 조금	9~21℃
여 수	흐린 후 오전에 갬	11~19℃
완 도	흐린 후 오전에 갬	9~19℃
구 례	구름 조금	5~23℃
해 남	흐린 후 오전에 갬	8~20℃
장 흥	흐린 후 오전에 갬	7~21℃
고 흥	흐린 후 오전에 갬	8~21℃
순 천	구름 조금	5~23℃
영 광	구름 조금	6~21℃
진 도	흐린 후 오전에 갬	8~20℃
전 주	맑음	6~24℃
남 원	구름 조금	4~23℃
흑산도	구름 조금	8~17℃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목 포 밀물 06:59 19:03 썰물 12:53 --:--
여 수 밀물 01:49 14:17 썰물 08:52 20:19

▲해뜸 05:45 ▲해짐 19:16 ▲달뜸 01:18 ▲달짐 11:2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화)	30(수)	5/1(목)	2(금)	3(토)	4(일)
날 씨						
최저/최고	12/28	14/27	13/27	14/28	15/29	14/29

■광주 YMCA '내인생의 자서전 학교' 입학생들

지난 25일 광주 YMCA 2층 교실에서 진행된 '자서전 학교'에 참가한 학생 8명이 생애 최고의 '자서전'을 만들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왼쪽부터 최봉익, 김병순, 나정수, 정재희, 박종례, 박행도, 위경애, 김경옥씨.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지난 삶 고백, 남은 삶 새출발해요"

"청춘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다. 나이를 더해 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고 이상을 잃을 때 비로소 늙는다.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독일 시인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란 이름의 시'에서 이같이 노래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광주YMCA가 지난 22일 문을 연 '내인생의 자서전 학교' 입학생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통해 남은 반생을 새롭게 추구해가고 있다.

입학생은 모두 10명으로 연령대는 54~82세까지로 다양하다. 직업 또한 전직 교사·전직 조합장·사진 작가·시민사회단체 간부 등이다. 퇴직 후 자신의 무의미한 삶에 염증을 느낀 이들은 무언가 '할 일'을 찾던 중 입학생 모집 공고를 보고 '노년의 반란'을 감행키로 마음 먹었다. 자신의 지난 경험과 고백을 후대에 남기고 싶던 이들에게 도움을 줄 곳이 생긴 것이다.

이들은 매주 화·목요일 1시간 30분씩 두 차례 7개월 과정으로 자유연상법, 디지털 카메라 촬영법, 편집 및 인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서전 출판 요령을 배우게 된다. 교육은 조선대학교 국문과 이계양 교수(문학평론가·수필가)가 맡고 있다. 이들이 담을 자서전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자신의 회고록을 비롯, '부모님 회상록' '은사의 자서전 일기' '나의 작품 일대기' 등 다양하다.

사진작가 정재희(66·남구 방림동)씨는 "나의 기록을 후대에 남기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찾아와 입학하게 됐다"며 "후손들이 나의 자서전을 보고 '우리 조상은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얘기를 들으면 하늘에서도 환한 미소를 지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예작가 위경애(여·54)씨는 "스승의 자서전을 쓰기 위해 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며 "스승과의 인연과 나의 작품활동기 등을 쓰고 싶다"고 설명했다.

전 조합장 나정수(70·남구 봉선동)씨는 "자서전을 쓰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제2의 인생을 재조명할 시간을 갖고 싶다"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광주 YMCA 정의춘 팀장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가진 연륜과 경험을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다"며 "학생들이 과거의 삶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PC방·노래방 등 36곳 고발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

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티켓영업, 도우미 고용 등을 일삼아 온 청소년 유해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27일 "최근 신학기를 맞아 다방과 여관, 노래방, 유흥주점,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1천42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모두 36곳을 적발해 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도우미 고용과 주류판매 노래방 업소 8곳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업소 4곳 ▲청소년 고용 다방 티켓영업 3곳 ▲청소년 성매매 알선 묵인 2곳 등이다.

남구 월산동 S다방과 북구 J모텔, 동구 P휴게음식점 등 7곳은 10대 청소년을 고용, 성매매 알선을 묵인하거나 티켓영업, 청소년 혼숙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영화감상실 무단 DVD 저작권 침해"

영화감상실(비디오방 · DVD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를 고객이 볼 수 있게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영화감상실 주인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6년 12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 · 2심 재판부는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영함에 있어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신용회복 도와드립니다"

광주 남구청

광주시 남구청이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자를 위한 신용회복 절차 상담 및 서류작성 대행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남구청에 따르면 신용회복을 원하는 채무자가 상담을 원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신용회복 절차·개인회생·개인 파산 여부 진단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최종적인 신용회복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류작성, 구비서류 확인 및 서류제출 대행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꽃샘 추위 안녕…내일부터 초여름

바람이 세고 체감기온이 뚝 떨어진 지난주와 달리 이번주 화요일(29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는 초여름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9일부터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가는 등 더운 한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29일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르다가 주말인 다음달 3일에는 29도까지 상승하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필상기자 kps@

축하! 골든벨 울리는 광주경찰청

구내식당에 설치…생일·포상 등 기쁨 나눠

광주지방경찰청 구내식당에 '황금종'(골든 벨)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생일·승진·포상 등 경사를 맞은 직원이나 부서가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치도록 하는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펀(fun) 공직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구내식당에 골든 벨을 설치, 운영중이다. 이 종은 지름 14.5㎝, 높이 13㎝에 황동으로 만들어졌다. 경사를 맞은 직원이나 부서장이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골든 벨을 치면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한다.

골든 벨이 설치된 지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우수한 실적으로 포상을 받은 부서와 정년퇴임을 앞둔 간부·종교 모임 등이 3차례 골든 벨을 울렸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경사를 맞은 직원이 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 등을 대접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골든 벨을 울리면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올해부터 기존의 경직된 문화를 깨뜨리고 '펀(fun)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칭찬릴레이를 이어가거나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정해 평상복 차림으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